

일주문

법문가요 음반 '참회' 출시

법만사 주지 법만 스님



종각구 법만사 주지·사진은 이번 음반 출시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결심은 1년전 월악산에서 칩거하며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백봉씨(한국향토음악인협회 상임부회장)를 만나면서부터다. 법만 스님이 직접 쓴 '참회'와 '수행' 등 두 개의 노래를 내밀자 불심 깊은 백봉 부회장이 곡을 붙여준 것. 곡을 받자마자 흥겹게 노래 부르는 법만 스님의 음악적 끼를 알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 전해 기뻐"

"찬불가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지만, 법문가요는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노래입니다. 즉 법문을 노래 말로 만든 것이지요. 법문은 대중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만 음반으로 출시된 법문가요는 장소와 사람들에 구애없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 포교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문가요란 새로운 장르로 최근 음반 '참회'를 낸 법만 스님(서울

아반 백봉 부회장은 이어 '속죄' '산승의 모정' '불효자의 눈물' 등을 작사 작곡해 범불교 법문가요 총 8곡이 수록된 음반을 만들었다. 대한불교 법화종 직할교구중무원장이기도 한 법만 스님은 "범불교 함께 노래로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음반이 일상생활에 지친 속세인들에게 감동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냈다. 02-433-6591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발심 복돋워 불자회 활성화

한빛은행 불자회 정진호 회장



"최근 회원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불자회 활동이 미약해지고 있어 회원들의 발심이 아쉽습니다. 회원들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 내 불자회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6일 열린 한빛은행 불자회 창립 3주년 기념법회에서 회장으로서 취임한 정진호(한촌동지점장·사진) 신임회장은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소감을 피력했다. 정 회장은 "1백여명에 이르는 회

"모임 통해 유대감 강화 모색"

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집단위 활동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지역별 직급별 소모임을 만들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신임회장은 소모임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정 회장은 "일반인들이 불교와 불자회에 대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불자회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봉선사 교양대학 제24기 입학식

봉선사(주지 일면) 제24기 교양대학 입학식이 12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행됐다. 이날 입학식에서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교리를 한가지 배운 뒤 다른 하나를 배우려고 하기에 앞서 이미 배운 그 한가지를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라"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일면 스님.



개금복지관 박용하 관장 취임식

개금복지관은 13일 복지관 강당에서 제7주년 개관 기념 및 관장이 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취임한 박용하 관장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신임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과정 개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윤광)는 11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당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2급 전문 지도자 과정 개강반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광 스님은 "3개월 동안 포교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앞줄 왼쪽부터 세번째가 법연 스님(중단협의회 사무국장), 네번째가 윤광 스님.



부산 여성불자회 8주년 기념법회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13일 부산시 백조벚꽃에서 창립 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류경자 총무가 깊은 신심과 적극적인 포교활동으로 부산불교연합회회장을 수상했다. 혜승 스님이 류경자 총무에게 부산불교연합회회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실련 통일협 이사장에 월주 김재 금산사 회주는 12일 경실련 통일협회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장학금 1400만원 지급 정려 부산 석암장학회 이사장은 14일 내원정사에서 중고 대학생 25명에게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불교병원기금 1억 전달 정우 구룡사 주지는 13일 동국대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일산에 건립 중인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삼천배 철이정진 기도 지연 삼보사 주지는 16일 지장만일기도도량 양주 육지장에서 삼천배 철이기도정진 법회를 봉행했다.

"사찰음식 학문적 정립"

선재 스님, 동국대 결입교수 우리나라 사찰음식 연구와 대중화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전통 사찰음식문화연구원 선재 스님(사진)이 20일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겸임교수에 임명됐다.

그동안 동국대 가정교육학과 의 요청으로 특강형식의 사찰음식 강의를 해 온 스님은 최근의 채식열풍과 사찰음식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맞물려 겸임교수 직을 수행하게 됐다. 스님은 "단순한 먹거리로서의 사찰음식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철학으로서, 의학·과학 등 제 분야 학문과의 연계성을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눔의 집에 5천만원 기탁

소설가 공지영 씨 <봉순이 언니>의 작가 공지영(사진) 씨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5천만원을 기탁했다. 공 씨는 5일 인세로 받은 2억 1천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며 5천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대중 눈높이 맞는 불서 널터"

임오년을 뛰는 불자 10·(주)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 대표



불교출판계가 수년째 계속된 출판 불황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획물로 임오년을 뛰는 출판인이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 김시열(사진)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 지난해 11월 불교출판 운주사에서 독립한 그는 올해 초 새로운 출판 기획을 세웠다. 그 기획들의 초점은 '대중성'이다. "불교출판이 활성화되려면 불교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 두지 않고 대중 속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출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특하면서도 참신한 기획과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우수한 필자가 있어야 합니다." 출판인으로서 무엇보다 기획을 강조하는 김 대표는 올해 새로운 기획을 시도한다. 누구나 알아두면 유익한 00시리즈'가 그것. 첫 번째 기획이다. 불교 인물, 불교 문화재, 불교 용어, 불교 예절 등 불교의 세분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초심자나 일반인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리즈는 권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최대한 불교를 세분화해 책으로 묶어내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용어와 예절, 불

교 풍속 등 3·4권이 준비 중이고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다. 또한 김 대표는 콘사이스사전 형식의 대중용 불교사전 출간도 추진하는 한편 우리 불자들에게 요긴한 번역물을 꾸준히 출간 계획도 세워놓았다.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선학총서시리즈를 비롯해 학술서도 계속해 출간한다. 김 대표가 올해 실험을 기울이는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서점 운영이다. 그동안 법보신문사와 공동으로 운영해온 인터넷 서점 '붓다 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김 씨는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편안하고 쉽게 불서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좋은 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이 좋은 책을 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서점은 독자들이만

'누구나 알아두면 유익...' 시리즈 기획

방에서 언제나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올해가 어느 해 보다 뜻깊다고 한다. 불교 출판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자 그동안 구상해온 출판기획물들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慧賢 元在閏 作品展

인사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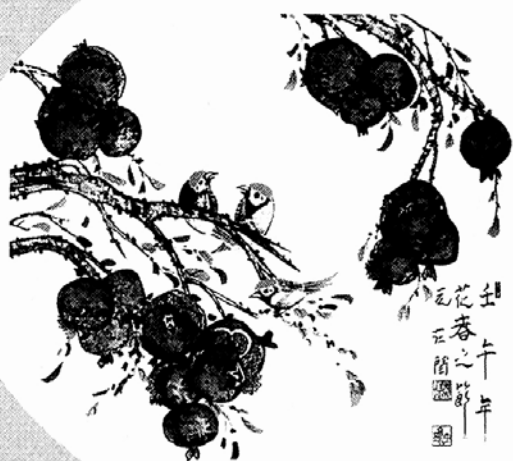
修行한지도 어언 30여년이고, 붓을 잡고 시름한지도 어언 30여년 이 되었습니다. 靑雲의 꿈을 접어두고, 마음 밝히는 데 한세월을 보냈었거려... 젊음은 어디에 두고 흰 머리만 가득하니 오호라~통제어 가는 세월을 어느 누가 잡고 막을수가 있겠는가. 어제 같이 개구장이었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사이 中年이 되고보니 봄날에 양지쪽에 누워 잠깐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서산에 해가 지고 있더라 하더니 오늘날 내가 황혼에 접어들니 인생사가 꼭 꿈꾸는 것만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몸도 마음도 움추려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가지에 찬 바람이 불어올 때 山寺에 풍경소리 그윽한 향내음이 나의 영혼을 일깨워 준다오. 自我라는 話頭에 일구월심으로 修行하지만 아직도 미흡함이 많고도 많이 자아를 뒤 돌아 보는 일들이 한 두번이 아니옵니다. 人間이 완벽함이 없기에 모순이 있고, 모순이 있기에 眞理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만사 한시를 놓고 묵향삼매에 한번 것어봄도 긴 인생사에 마음에 지식과 여유로움이 나의 풍류기질을 부족함도 있으면, 즐거울때나 쓸쓸할 때 친구이자 벗으로 여기고 30여년 동반하여 왔습니다. 마음에 아니되고 미흡함이 많더라도 제방 큰스님네 제한들께서 왕림하셔서 문책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이만 인사 가뉘하옵니다.



원재은 스님

약력

- 불미전 입·특선
- 한국미술대전 특선
- 제1회 단원예술제 특선
- 한국예술83대전 특선
- 불우이웃돕기 그룹전 출품
- 고승합동전시회 출품
- 은혜사 교무규정 역임
- 제작사 주지 역임
- 경흥사(경산) 주지 역임
- 천석 박근술선생 사사
- 라홍원선생 사사
- 옥전 강지주선생 사사
- 일파 박영근선생 사사
- 97년도 대구에서 개인전 전시
- 영지사 주지 역임
- 현. 진왕화실 원장



2002년 3월 2일 청도화실에서 원재은 합장

■ 일 시 : 2002. 4. 2(火) ~ 4. 8(月)
■ 장 소 :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 2전시장
■ 문의전화 : 051)500-5386

■ 화 실 : 경북 청도군 화영읍 송북리 404-3번지
■ TEL. 054)373-3556 H.P. 011)503-9933